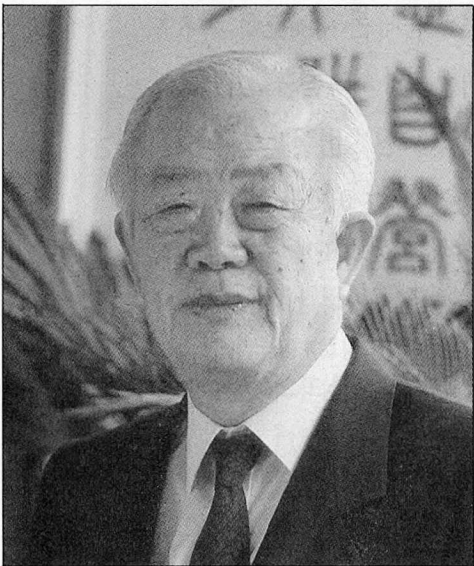


불교미술 연구의 개척자적 '터잡기'

「韓國의 佛像」 펴낸 黃壽永 박사



「한국의 불상」은 이제까지 왜곡됐거나 소홀히 취급됐던 우리 불교미술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가능케 하는 값진 연구성과를 담고 있다. 이 책을 통해 黃박사는 한국불상의 통사적 계보를 엮어내는 한편, 삼국의 반가사유상과 미륵신앙과의 관계 등을 새롭게 밝혀주고 있다.

황수영 박사

한국美術史學의 원로 蕉雨 黃壽永 박사(71·동국대 명예교수)가 최근 불교미술에 관한 그간의 연구성과를 집대성한 「韓國의 佛像」(문예출판사)을 펴냈다.

이 책은 특히 해방 이후 검출된 새 자료들을 챙기고 추스려 해명하는 데 중점을 둬으로써, 현전하는 실물과 관계문헌이 빈약한 우리 고대미술사 정립의 소중한 단초를 열어보이고 있어 주목을 끈다. 아울러, 올봄 상재했던 「石窟庵」에 이은 5개월여만의 또다른 저서라는 점에서 불교미술연구에 바쳐온 黃박사의 지칠줄 모르는 집념과 열정 또한 엿볼 수 있게 한다.

“일관된 체계의 단행본을 염두에 두고 쓴 글들이 아니라 기왕에 발표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엮은 책이어서 사실 씩 흠족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역시 책을 낸다는 일은 기본이 관중이요. 일부 新稿를 덧붙여 관련논문을 시대별로 정리해보았는데, 이 방면에 뜻을 둔 연구자들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줄 수 있기를 기대해드립니다.”

한국불상의 系譜 새롭게 밝혀내

‘총론’을 비롯, ‘고구려·백제·고신라’ ‘통일신라’ ‘고려’의 불상 등 6부로 구성된 이 책의 수록논문은 모두 20편. 1950년대 후반에서 최근까지 30여년에 걸쳐 쓰여진 글들 가운데서 가려뽑아 시간적으로는 ‘鮮度’가 제각각이지만, 그 내용으로는 여전히 바래지 않은 선도를 발휘하고 있다.

예컨대, 충남 서산과 봉안의 磨崖佛, 연기의 石佛, 경북 봉화의 마애불, 군위의 三尊石窟 등, 이 책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각 시대별

대표하는 개별 불상에 대한 연구가 대표적이다. “구체적인 불상작품에 대한 개별연구가 아직도 단편적이고 충분치 못하다”고 지적하는 黃박사는 이같은 작업을 통해 우리 고대조각사 연구의 ‘터잡기’를 시도하고 있다. 「한국의 불상」을 펴낸 근본취지도 다 이에 있거니와, 보다 단단한 터잡기를 위해서는 연구의 대상을 넓혀잡는 일 또한 필수적이라는 것이 黃박사의 말이다.

“우선, 산간벽지나 고찰에 방치된 채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것들부터 차근차근 챙겨 나가야 합니다. 또,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들에 대한 정밀한 재조사는 물론이고, 개인소장의 형태로 국내에 숨어 있는 것들까지 폭넓게 찾아내는 노력을 기울여야죠. 언뜻 보기에 무심한 것도 그저 무심하게만 보아 넘기지 않을 때 고대미술사 연구의 필드가 넓어집니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개개 작품의 의미를 하나로 꿰는 통시적 맥락과, 한국불상 고유의 전통기반을 올바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백제마애불을 비롯한 일련의 삼국시대 石佛연구의 집적을 통해, 경주 석굴암에 정점을 두고 있는 고대 석불의 ‘系譜’를 엮어내려 한 시도는 전자의 좋은 예가 된다. 후자의 경우로는 고구려·백제·신라 삼국의 유물이 모두 전해지면서 국내외적으로 한국미술의 극치로 꼽히고 있는 ‘半跏像’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이 책에서 黃박사는 반가상의 조성이 삼국을 통틀어 당대에 널리 유행했던 미륵신앙의 전통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음을 밝혀내고 있다.

“탑과 불상이 한국고미술의 핵심”

경기도 開城 태생으로 이룬난 개성상인의 후예답게 원래는 일본 東京大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던 黃박사가 고대미술 연구에 들어서게 된 것은 스승의 영향이 거의 절대적이었다. 물론 애초부터 이 방면에 각별한 취미가 있기도 했다. 동경유학시절 방학을 맞아 귀향할 때면 으레 비게 되는 서울서 개성까지의 기차편을 기다리는 너댓시간을, 덕수궁의 李王家 박물관이나 경복궁에서 금동미륵반가사유상 등의 명품을 감상하는 데 다 보내곤 할 정도였다. 하지만, 보다 직접적인 입문의 계기는 그 스스로 “경도됐었다”고 표현하는 스승 高裕變과의 만남을 통해 마련된다.

“방학을 맞아 잠시 귀향중이던 학생의 신분으로, 혹은 고향의 상업학교에 재직하던 교사로서 당시 개성박물관장으로 와 계시던 고유섭 선생을 돕다가 아예 본격적인 고대미술 연구에 들어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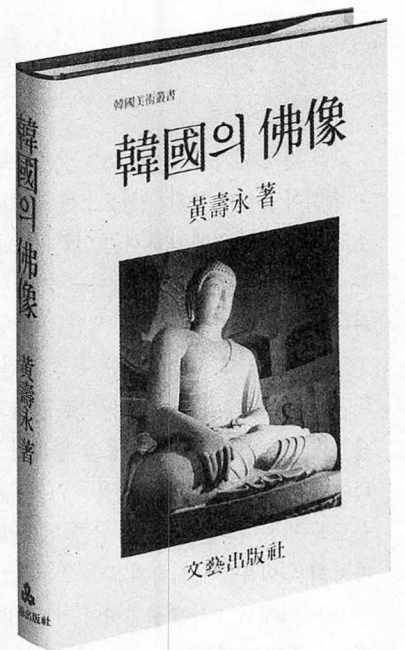
그러나, 1944년 스승의 이른 죽음만 아니었다면 어쩌면 길을 달리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黃박사의 말이다. 해방후 국립박물관 연구관으로 들어가 스승의 유고를 수습해 책으로 펴내는 일을 하면서 비로소 그는 “선생이 살아계셨다면 선생 스스로 완성했을 연구”를 자신이 잇겠다고 결심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의 반세기에 걸친 그의 한국고미술 천착은 불교미술, 그중에서도 주로 조각쪽에 집중돼 왔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탑과 불상이야말로 한국고미술의 가장 핵심적인 두 아이터이기 때문이다.” 첫 저서 「한국불상의 연구」(1973) 이후 잇따라 펴낸 10여권의 역서는 그런 점에서 이 두 아이터를 중심한 고미술 복원작업의 그때그때의 중간결산인 셈이다.

“불교조각이 우리 고미술의 ‘주연배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연배우의 면모를 온전히 전하는 유물과 문헌자료가 매우 드물다는 점입니다. 대개는 파편의 형태로 산재돼 있죠. 고대미술 자체가 ‘파편미술’이란 게 제 생각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같은 파편을 모아 원래대로의 온전한 모습을 복원해내야 한다는 것이 고미술 연구의 어려움이자 재미이기도 합니다.”

‘고물’만 좇아다니던 50년 외길연구

국립 중앙박물관장과 동국대 총장을 거쳐 지난 86년 대학에서 정년퇴임한 黃박사는 요즘



대학원장직 하나만을 맡고 있다. 그런 만큼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많은 편이어서, 그가 현장지도위원으로 있는 益山 미륵사지와 경주 황룡사지 발굴현장에 이따금씩 들른다. 그동안 미처 보지 못했던 개인소장의 고미술품을 수소문해 보러다니는 데도 꽤 공을 들이고 있고, 한편으론 반가상 연구를 단행본 형태로 체계화할 후속 저술의 준비 또한 진행하고 있다.

반가상 연구서는 특히 그가 필생의 목표로 삼을 만큼 깊은 애정과 집념을 쏟고 있는 책이다. 사진작가 安章憲씨와 2년여의 공동작업 끝에 펴냈던 「석굴암」처럼 한국 반가상의 모든 것을 원색도판과 함께 망라할 예정인데, 그 전단계가 되는 대중용 축약판이 이미 집필에 들어가 곧 출간을 앞두고 있다.

거의 평생을 ‘고물’만 좇아다니느라 특별한 취미도 없고 “술·담배도 젊어 한때 잠깐 시늉만 내고 말았다”는 黃박사는, 자신의 고미술연구 외길인생에 “하고 싶은 공부 마음대로 했으니 얼마나 다행이나”고 할 만큼 만족과 자부를 느낀다. 그러나, 자신과 같은 길을 걷고 싶어한다는 고3짜리 손주에게는 “세계 밥보다 더 좋은, 그래서 안하면 못건널 정도로 좋다는 확신이 서면 한번 매달려 보라”고 조언한다.

한강의 너른 강줄기가 눈아래 굽어보이는 서울 위커했의 고층아파트에서 黃수영박사는, 澗松 전형필이 지어주었다는 아호 ‘蕉雨’처럼 고미술의 향취에 둘러싸여 풍치있게 산다. 그런 그에게 다만 하나 남은 욕심이 있다면, 자신이 참여하고 찾아내고 손냈던 일들을 빠짐없이 생전에 정리해 후학들에게 ‘글’로 물려주는 일이다. <강철주>